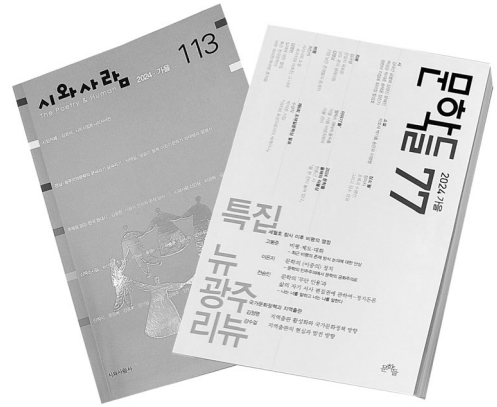


'지역 문예지' 가을만큼 풍성

'문학들'·'시와 사람' 가을호 발간
세월호 참사 비평적 관점에서 다뤄
'주제로 읽는 한국현대시' 등 눈길



장이지 작가가 제주를 모티브로 쓴 '장소' '들'의 제주 풍경.

〈문학들 제공〉

가을을 맞아 지역의 대표 문예지 '문학들' (통권 77호)과 '시와 사람' (통권 113호) 가을호가 나왔다. 20년, 30년 가까이 문화 환경이 척박한 지역에서 문예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두 문예지는 이번 호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지역민들과 문인들을 찾아왔다. 매 호마다 시대의 문제와 이슈를 외면하지 않고 문학의 담론으로 끌어들이며 독자들에게 호응하고 있다.

◇'문학들', 세월호 참사 비평적 관점으로 다뤄
'문학들'은 특집으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비평적 관점에서 다뤘다. 세월호 때부터 이어져 온 문학적 애도는 다시 이태원을 겪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학에 넘쳐흐르는 공감, 통감, 슬픔, 아픔, 눈물' 등은 시대와 함께 겪는 문학의 몫임이 이자 문학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봉준이 '비평·제도·대화·최근 비평의 존재 방식 논의에 대한 단상'을, 이은지는 '문학의 '이중의 정치'-문학의 민주주의에서 문학의 공화주의'를, 전승민은 '문학의 '무단 인용'과 삶의 자기 서사 편집권에 관하여-정지돈론'을 게재했다.

고봉준은 최근 비평을 토대로 비평과 제도의 연관에 대해 사유하며 이은지는 문학이 시민들의 욕망과 충돌하는 지점을 가시화하는 것은 물론 갈등의 체계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전승민은 개인의 서사 편집권이 가진 배타성의 문제,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적 도식의 문제 등

을 짚으며 '자기 서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임을 강조한다.

뉴 광주 리뷰에는 김정명의 '지역출판 활성화와 국가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글이 수록됐다. 저자는 '분산되어 있는 각 지역에서의 '지역출판 진흥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와 통합되어야 한다. 출판에는 서점이라는 영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강수철은 '지역출판의 현실과 발전 방향'에서 "지역 출판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출판사에 비해 자본, 인력, 출판 유통, 마케팅 등에서 열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출판사가 기획 발굴한 콘텐츠의 가치는 서울 수도권에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지역의 출판산업이 성장하려면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제6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작인 박석준 시인의 시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내'에 대한 심사경위, 본심평, 예심평, 자선시 등이 실려 있다.

작가들 작품으로 시 분야 강대선, 금별피, 김성신, 문혜진, 박상순, 송태웅, 장진기, 정한아, 지영애, 최미정, 함성호 시인의 작품과 소설 부문 박호재, 백가흠, 송은유, 이명행의 작품을 만난다.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 수상작인 한중근 시인의 시 '물 한 잔이 놓여 있다'에 대한 심사평, 수상작도 실려 있다.

◇'시와 사람', '주제로 읽는 한국현대시' 눈길

'시와 사람'은 시인카페에서 김은아 시인의 '나의 시집은 나의 자서전'을 소개했다.

'전남-광주지역문학의 은사라기 금씨라기 8'에서는 박태일이 '영광의 월광 어린이문학가 정태병과 절명시'를 다뤘다. 특별 대담 코너에서는 '시와 회화의 독자성과 친연성'을 주제로 최서림 시인과의 대담을 소개했다. 9권 시집을 상재한 최서림은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 서인은 "서정시는 시인의 일관된 시선, 주관적 세계관으로 사물들을 질서 있게 읽어서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서정시는 논리적이면서 선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신작시 코너에는 강경호, 강만, 김도연, 김이름, 문정희, 이은배, 정영숙 시인의 작품이 신작시조 부문은 백래홍 시인의 시조가 수록돼 있다. 에세이는 전승수 필자의 글을 만날 수 있다. 신인상 당선작 코너에는 시 부문 리경희, 김용갑의 작품과 심사평, 당선소감이 수록돼 있으며 수필 부문 민판기의 작품과 심사평, 당선소감을 만날 수 있다.

'주제로 읽는 한국 현대시'에서는 김동원이 '사랑의 진리와 존재 방식'을 기술했다. 이밖에 강대선 시인은 오종문 시집 '봄 끝 길다', 한혜영 시집 '뒷모습에 잠깐 빠졌을 뿐입니다'를 평했으며 강나루 시인은 나희덕 시인의 시집 '그러나 꽃보다 다 적게 산 나'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즈로 가을 감성 충전

재즈브릿지컴퍼니 재즈듀오 공연,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재즈의 계절 가을, 광주 출신의 두 재즈 뮤지션이 로컬 팬들을 찾아온다. 임채희의 따듯하고 포근한 음색과 올해 '재즈피플'의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안킴의 감미로운 피아노가 관객들을 낭만으로 인도한다.

재즈브릿지컴퍼니가 재즈듀오 공연 'Tea for Two'를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연다. 사색의 계절을 맞아 재즈 스탠더드와 발라드 등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재즈 명곡으로 알려진 'Tea for Two'를 비롯해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 연인과 뉴욕을 여행하는 느낌을 주는 'How about you', 조지 거슈윈의 'Love is here to stay' 등 익숙한 노래들이 울려 퍼진다.

광주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 임채희는 뉴욕시립대에서 재즈 스타디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21년 한국 재즈전에 데뷔 한 이래 정규 1집 'Easy Living'을 발매했으며 재즈인렘, 데블스도어 등 공간에서 공연을 펼쳐 왔다.

호원대 실용음악학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안킴(김요한)은 올해 재즈피플이 선정한 '라이징 스타'로 1집 발매를 앞두고 있다. ACC, 해운대문화회관을 비롯해 노들섬 플레이 재즈 페스티벌과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에 출연했다.

재즈브릿지컴퍼니 윤혜빈은 "피아노와 목소리라는 두 '악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긴밀하게



피아니스트 안킴(왼쪽)과 보컬리스트 임채희. 〈재즈브릿지컴퍼니 제공〉

호흡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며 "듀오 편성의 이번 연주는 가을에 듣기 좋은 발라드와 러브송을 부르기에 최적화된 편성"이라고 했다. 전석 3만 원, 네이버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타악, 무대 주인공이 되다

광주문화재단, 타악집단 '자우' 초청 공연 14일 너털마당



타악집단 자우가 '바람: 불어오다'를 연주하는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신명 나는 '타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은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 그동안 선율악기의 반주 역할을 하던 타악기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펼쳐진다.

타악집단 자우(대표 신예인)가 '바람: 불어오다'를 오는 14일 오후 3시 너털마당에서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토요상설공연 세 번째로 기획한 공연이며, 자우의 '불철주야', '몽금포타령', '바람길' 등을 비롯해 신곡 '초월' 등으로 채워진다.

팀명 '자우(慈雨-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에는 음악을 통해 메마른 사람들의 감성을 적시고 싶다는 의미를 투영했다. 이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전통을 재창조하며 대중과 공감을 추구해 왔다. 타악 파트에 신예인, 흥은주, 광민경을 비롯해 윤지

아, 최세영 등이 있으며 김리수(피리, 태평소), 조예결(소리, 사회) 등이 출연.

2021년 선보였던 '수평선', '불철주야', '바람길' 등 곡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신곡 '초월'과 '바람: 불어오다'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황해도 민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몽금포타령을 재해석한 '몽금포타령'도 관객들을 만난다. 어부들의 생활을 노래하는 곡으로 흥겨운 후렴구가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같은 날(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토·토·전!' 행사도 볼거리다. 절기 관련 체험행사와 연희, 민속놀이 및 한복 체험 등이 놀이마당에 마련된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수은 강항선생 애국·선비 정신 계승

20~21일 '강항문화제'...선비한복 본선·학술대회 등

영광 출신 수은 강항(1567~1618) 선생은 조선시대 일본에 성리학을 전파했으며 정유재란 당시 군량 수송과 의병 모집을 맡아 기여했다. 그러나 두 형과 왜군의 포로가 돼 일본에 끌려가 3년여 가까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선생은 왜국의 동정을 기록한 '적중봉소'를 본국으로 보내 조선으로 하여금 왜국의 정세를 파악하게 했으며 귀국 후

쓴 저술서 '간양록'은 조선 선비의 기개와 성리학 전파의 의미 등을 담은 책으로 사적 가치가 높다.

강항문화제(운영위원장 탁인석) 일환으로 20일 강항의 날 기념식과 대한민국 K-선비한복 본선대회가 상사화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선비한복 본선대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 '강항의 날'에 영광 상사화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선

비대상(200만원 시상금)과 순위별 강항로드(ROAD)탐방비 차등 혜택을 놓고 선비한복(심 의)의 향기를 뿜낸다.

K-학술대회와 강항 K-문예제전 시상식은 21일 오후 2시부터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특히 강항문화제는 9월 20~21일 양 이틀간에 걸쳐 열리며, 수은 강항선생 일본연구회 임원들이 올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편 강항 K-문예제전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선비한복 본선대회의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